

제2회 녹색기술포럼 개최

건국대는 교내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공동 설립한 건국대-프라운호퍼 차세대태양전지연구소(KFnSC)주최로 10월 14-15일 양일간 제2회 녹색기술 국제포럼(The 2nd International Green Technology Forum)을 개최한다.

그린에너지 기술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교류 활성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복합 나노 태양전지, Flexible 태양전지,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응용부문 등에서의 국제적 산·학·연 모델과 연구성과, 차세대 태양전지 관련기술 개발 현황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에는 차세대 태양전지 연구에 참여하는 코오롱글로벌을 비롯해 국내외 태양 에너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건국대-프라운호퍼 차세대태양전지연구소는 2009년 5월 건국대와 세계적인 태양에너지연구소인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ISE가 공동 설립했으며, 코오롱, 동진썬미캠, SNU프리시전,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건설, 이건창호, 경동솔라 등 태양전지와 전자소재 생산기업들과 함께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0/10/14>